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자

수리아의 검-III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사막의 세 머리 용 (8)

“그래, 들키지 말고!”
무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하며 일어서던 남자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두 사람 쪽을 향해 말했다.

“저기 말이야.”
무니와 난다가 ‘응?’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남자를 바라봤다.

“너희들을 가진 건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정말 너희 계획대로 용을 물리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을을 돕겠다고 나서줘서.”

잠시 말을 멈춘 남자가 계속 말했다.
“물론 말 그대로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이런 서로의 모습을 기억하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 하지만 그냥 모두 전처럼 집에서 나와 함께 놀 수 있으면 좋겠어. 전과 똑같은게는 않아도 말이야. 그렇게는 되겠지?”

가만히 이야기를 들던 무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남자는 속스럽다는 듯 뒷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사뭇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다. 뒤따라 일어났던 난다와 무니 역시 마찬가지로 말했다.

남자는 속스럽다는 듯 뒷머리를 긁적거리더니 사뭇 비장한 표정을 지으며 일어섰다. 하지만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멈춰서고 말았다. 뒤따라 일어났던 난다와 무니 역시 마찬가지로 말했다.

세 소년과 마을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멎어 있는 듯한 상태로 그렇게 잠시 멈춰 서 있었다.

“내가 움직이면 너희들은 아까 우리가 빠져나왔던 지하로 쪽으로 다시 가서 기다리고 있어. 일단 마을 사람들을 막는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너희에게 보낼게.”

남자가 여전히 마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두 사람에게 말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저 사람들 표정 보니까, 그럴 거 같지는 않은데?”
무니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남자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저런 표정은 한 번도 본 적 없어.’ 남자는 무서웠다. 저 중에 남자 자신의 부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시 희미한 열기가 느껴졌다.

“아무튼 그럼 거기서 보자.”
남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난다는 그런 남자에게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관두고 무니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두 사람은 서서히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남자가 뛰기 시작하자, 이윽고 그들도 몸을 뒤돌려 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 쪽의 등불도 순식간에 꺼졌다. 그리



삽화 · 김홍인

고 몸을 낮추고 옥수수 사이를 빠르게 헤쳐 가는 소년들을 뒤쫓았다.

잠시 후, 발을 빼져나온 무니와 난다는 일단 숲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상태였다. 지하통로 입구 바로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남자를 붙잡은 사람들은 정작 중요한 다른 두 소년을 시야에서 놓쳐버려 눈을 부릅뜬 채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들이 든 등불에 그들 자신의 얼굴이 비칠 때마다 드러나는 표정은 섬뜩했다. 이기심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을 저렇게 만든 것일까. 무니는 마히샤들이 떠올랐다. 그들에게서는 옥구나 감정을 찾을 수 없었다. 무엇이 더 무서운 걸까. 사람들은 점점 숲 쪽으로, 그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희미하게 느껴졌던 열기는 이 순간에도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었다. 불길은 잠시 멈춘 거 같았지만, 용은 확실히 마을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거 같더니 주민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마을 광장으로 모여요!”
여기저기서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왜냐고 물어보는 거 같았는데 대답은 잘 들리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모두 숲을 떠났다.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무니와 난다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남자가 보내준다고 했던 말은 올 거 같지 않았다.

“실마, 저 사람들 남카를... 그런 일은 없었는지? 무니가 말했다. 난다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겠어.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서자.”
무니가 비장하게 말했다.
“무슨 소리하는 거야?”
“어차피 용하고 부딪쳐야 하는 건 같잖아.”
난다는 “그렇지만,”이라고 말하다 그냥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뭐, 이래도, 저래도. 후후. 너 아까 옥수수밭에서 남카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때 문에 생각이 바뀐 거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함께 놀고 싶다는 말.”
“그런 거 아니야!”
무니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아무튼 그럼 나 혼자 남카에게 갈게. 넌 그냥 이대로 칸타카 있는 데로 가. 그 잠 오는 약초나 이리 줘.”
무니의 말에 난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혼자 간다고! 너 왜 그래?”
“용 같은 거 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약초를 들고 용의 뱃속으로 들어가 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 말고 내가 들어가게 맞아. 난 죽지 않을 테니까.”
무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금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 짓지 마.”
난다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걸 언제 알아?”

“지금 그게 중요해?”
“아무튼 그 계획엔 두 사람이 필요해. 누가 용 뱃속에 들어가는 밖에서 용에 맞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 너만 그러도 보낼 수는 없어.”
난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난다는 그래도 “안 돼!”하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용을 잡을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안전하구.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내가 어제 먹 어 봐서 알잖아.”
무니의 계속되는 설득에도 난다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고 있었다. 결국 무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난다의 어깨를 톡 쳤다. 두 소년은 함께 마을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무니와 난다가 마을 광장에 도착했을 때, 촌장과 남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촌장이 이 일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게다가 잡아놓은 아이들을 놔준 것도 남카라는 것이다. 기세등등한 그들의 위협에도 촌장은 남카의 어깨를 짊 채, 사람들과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이제까지 촌장의 역할은 말이나 경작물에 관해 드물게 생기는 갈등을 조정하거나, 정기적인 마을 회의를 주최하는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이런 경우에도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못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해볼 이유가 없었다. ‘어

차피 이 사람들은 아들을 빼앗아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지나갔다. 아들의 떨린 어깨를 감싼 촌장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다른 쪽을 향했다. 도망쳤던 소년들이 제 발로 걸어오고 있었다. 촌장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린 남카는 무니와 난다를 쳐다보며 잠았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소년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그들을 커다란 말에 매달았다. 촌장과 남카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미리 준비되어있었다는 듯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신속하게 준비를 마친 말은 사하라 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년들을 태운 말은 숲 한번 내쉬지 않는 듯 달렸다. 멀리 잠시 잠잠해진 듯한 불길 위로 조금씩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 녀석이 아까 남카가 말했던 그 빠른 말인가 봐.”
난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다.
“우리 칸타카보다 빠른가?”
“글세. 하지만 앞으론 칸타카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말이 될 걸.”
“무슨 말이야?”

무니와 난다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난다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말이 한층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니와 난다는 묶인 두 손으로 말고삐를 더욱 세게 붙잡았다. 점점 그들 시야에서 숲이 사라지더니 갠터미가 날리는 황량한 평야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막이었다. 아무 것도 없는 회색의 사막. 이곳도 아마 나무가 많은 평화로운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를 전 그들을 위협했던 바로 그 불의 결과는 그렇게 처참했다. 무니와 난다의 콧속으로는 말이 달리면서 일으킨 먼지가 마구 들어오고 있었다.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알아? 아직도 다 안 땀어.”
이윽고 사막을 빠져나오게 되자 무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말은 잠시 속도를 늦춰서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응. 지금 우리 칸타카보다 확실히 빠른 거 같아. 도대체 무슨 종이?”
“나중에 책 찾아봐.”

두 사람은 말의 속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하자 또 입을 닫았다. 무니는 이제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빨리 용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였다. ‘확! 확!’ 하는 소리를 내며 귀를 스쳐지나간 바람 소리가 그치는가 싶더니 말이 멈춰섰다. 정신없이 실려 오던 무니와 난다는 한참이 지나서야 매달려 있던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또 사막이었다. ‘되돌아온 건가?’ 싶어서 주위를 둘러보면 두 소년의 눈에 작은 불티들이 땅 위에서 춤추듯 흩날리는 게 보였다. 후끈한 열기가 느껴졌다.

843호 | 불자정보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부지 : 2,500평
- 별도부지 230평(심야보일러) 사용가능
- 신축입법당 30평 외 3동
- 천연 약수 있음
- 가액 : 3억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9901-3530

사찰(터)안내

- 위치: 밀양시 단장명
- 총평수 : 5필지 (2,464평)
(답, 입야, 전답)
- 가액: 평당 23만원

010-8265-0045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1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이고, 기술이 능력이야.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살피고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도 없음.
- 도구나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무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십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